



신준모 군·최현자 씨에 지원금

생명나눔실천본부 10월 환자돕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9일 조계사에서 신준모(왼쪽)군과 최현자(오른쪽)씨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11월 9일 조계사 종무실에서 신준모(7세, 심실중격결손증)군과 최현자(22세, 급성골수성 백혈병)씨에게 환자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0월의 환자로 지정한 신준모군에게 전달된 환자지원금은 불이원에서 보내준 3백만원을 비롯 불자들의 성금 6백94만1100원이다. 또 10월 여성환자로 지정된 최현자씨에게 전달된 4백3만3135원은 10월 16일 조계사장건주간 행사시 바자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이다. 현재 신준모군은 3차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최현자씨는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중이다. 김원우 기자

“대표 보시 행사로 만들 것”

봉선사, 김장김치 나눔 행사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최재성 의원·이광길 남양주시장(왼쪽 두번째 부터)이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11월 13일 경내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철안 스님을 비롯한 봉선사 대중 스님들과 이광길 남양주시장, 최재성 국회의원(남양주 갑), 이학송 광동중학교 교장, 봉선사 신도 등 50여명은 이날 2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 김장김치는 남양주시와 구리시 거주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전달된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이 행사를 정례화해 봉선사의 대표적인 보시 행사로 만들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포교단을 구성해 봉사를 통한 포교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증심사·문빈정사 음식 판매 수익금

소아백혈병 어린이에 전달

광주 무등산 내에 자리한 증심사(주지 진화)와 문빈정사(주지 석장)가 등산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해 모은 성금 800만원을 소아백혈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화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월 16일 화순 전남대 병원 원장실에서 '4차 생명나눔 무병지원금 지원식'을 갖고 증심사와 문빈정사가 모금한 성금을 김태훈(11.골육종)군과 박시국(16.재생불량성빈혈)군에게 전달했다. 이날 소아암 환우들에게 직접 치료비용을 전달한 진화 스님은 “무섭다는 말을 의연하게 이겨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신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매년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병지원금 지원식에 이어 진화 스님은 소아암 병동을 찾아 소아암 환우들에게 겨울용 목도리 30여개를 나눠줬다. 이번 성금은 증심사와 문빈정사 신도들과 함께 무등산을 찾은 등반객을 대상으로 호박죽과 국수를 판매해 모았다. 이준엽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1차 결산



서울 경기 12개 종립학교 72명에 장학금 전달

서울 경기지역 12개 불교 종립 중·고등학교에 재학생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72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된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김광삼(가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10월 31일까지 모금된 성금 2700만원으로 마련된 이 행사는 전국교법사단(단장 김형중)이 후원 이어 강화월드 대강당에서 대원장사 김범준 상임법사의 불교교리강연, 이성훈 실장(선재이벤트)의 진행으로 마음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8일에는 장학금 전달식과 초지진 역사체험 일정으로 회향된다. 본사 나눔의 손잡기는 1차로 서울경기지역 12개 불교 종립 중·고등학교에 재학생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2차 장학금 전달은 내년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은 “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동체대비(同體大愛)'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을 생활화할 때”라며 “한 해동안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 성금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교법사·학교장 추천 불우 학생 대상

11월 27~28일, 강화 전등사에서 산사체험

한다. 12개 종립학교 72명의 장학생은 각 종립학교 교법사(심학교사)와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제 1회 종립학교 학생 장학금 전달식은 11월 27~28일 강화도 전등사와 강화월드에서 산사체험을 겸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산사체험 및 장학금 전달식은 27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입재시, 공인장 전등사 종무실장의 사찰 안내, 전등사 주지 계성스님의 법문, 발우공양 및 저녁예불 제형순으로 열린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Lists names like 송기, 김진수, 전해국, 전인표, 송문규, 김건국, etc., and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 amounts.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의 ARS (060-700-1080)를 3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자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ARS: 060-700-1080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교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문의/좋은벗 경소리 (02)723-9836

나눔의 성금

원주 단청나라 - 5만8천원 대구 소문철 - 6만원 서울 윤선애 - 1만원 총 누적금액 27,845,660원

알림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1차로 11월말 서울경기지역 12개 종립학교에 재학생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금 접수에 많은 동참바라며,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도 수거하고자 합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운 영하는 가계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계'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아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결해 드립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증가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현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정기후원 참여 -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 불교권 국외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이 떨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감자,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당부드립니다. 보고싶은 가족찾기 -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